

탑의 진화

⑩ 중국의 불탑(6) - 정각식(亭閣式)탑

중국 건축과 인도불탑의 조화로운 결합

지난 호에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정각식탑은 중국의 전통 건축양식인 정각위에 인도의 불탑이 탑찰 형식으로 올라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조성된 불탑을 말한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각식탑은 제남시 신통사(神通寺)유적지에 남아있는 일명 사문탑(四門塔)이다.

원래 신통사는 전진(前秦)시기의 황시 원년(皇始元年: 351)에 인도에서 온 랑공(朗公)스님이 산 좋고 물 맑은 이곳에 절을 세우고 랑공사(朗公寺)라 이름 지었다.

양(梁)나라의 혜교(釋慧皎)스님이 지은 '고승전(高僧傳)'에 의하면, 랑공사는 아름답고 깊은 산에 웅장한 사원과 건물이 10여 구역을 이루고 있으며, 산동 불교의 발상지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에 불교를 전래한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왕과 동진(東晉)의 황제가 제물을 보시하였으며, 고구려에서 금동불상을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당(唐)나라 도선(道宣)이 지은 '속고승전(續高僧傳)'에는 수(隋)나라의 개황(開皇) 3년(583년) 문제(文帝)가 랑공사의 부처님께 예를 표하려고 참배사절단을 보냈는데, 사절단이 절 입구에 들어서자 만물이 갈라짐이 나타나 절 이름을 신통사(神通寺)라고 고쳐 부르게 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러한 신통사는 원(元)나라와의 전쟁에서 많은 전각이 불탔으나, 명대(明代)에 수리복원 하였고, 청조(淸朝)에 이르러 다시 폐허가 되었다.

현재는 옛 절터에 불탑과 승탑이 즐비하며, 마애석상과 경당 부분의 석주와 주춧돌이 잔존한다. 특히, 이 유적지에 있는 불탑 중 신통사사문탑(神通寺四門塔)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정각식탑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어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 동안 이 불탑의 조성 연대는 동위(東魏)시대인 544년으로 알려져 왔으나, 1972년 복원과정에서 수나라 대업(大業) 7년, 즉 611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밝혀졌다.

사문탑의 탑신은 청석(靑石)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벽돌처럼 쌓은 일종의 모전석탑이다. 청석은 오래된 퇴적암모래와 자갈이 결합된 일종의 사암(砂岩)으로 화강암 혹은 대리석과 비교하여 미끄럼 방지 효과와 내마모성 등의 장점이 있다. 특히 청석탑의 재료인 청석은 세월이 지날수록 고색창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탑의 중후함을 더해주는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보여주는 재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청석을 재료로 하여 탑을 조성한 예가 지금 까지도 전국에 남아있다. 김제 금산사 청석탑, 한천 해인사 원당암 청석탑, 대구 동화사 염복암 청석탑, 범주사 여적암 청석탑, 충주 창릉사 청석탑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나라 불탑의 변천과정을 다룰 때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사문탑'의 높이는 15.04m이며, 한 변의 길이는 7.4m이다. 4개의 탑신 면에 아치형의 출입문을 두어 후세 사람들이 문이 4개라 하여 사문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붕의 층급받침은 내어쌓기로 5층이며, 지붕은 들어쌓기로 23단을 이루고 있다. 탑의 상부에는 탑찰이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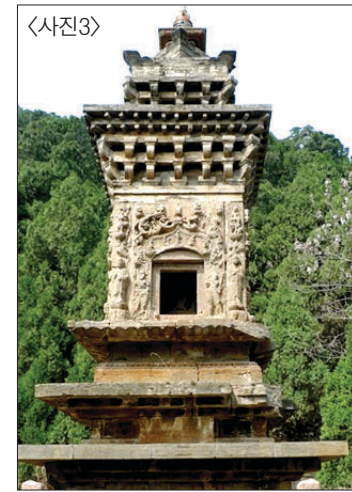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탑 중 신라시대 때 조성된 탑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각식탑은 제남시 신통사유적지에 남아있는 사문탑이다.



후세 사람들이 사문탑 탑신 기둥에 모신 서방의 아미타불.



용, 호랑이 등 부조가 새겨진 용호탑.

제남시 신통사지 사문탑 最古 청석을 벽돌처럼 쌓은 모전탑 형식 분황사 모전탑과 연관 가능성

퇴적암 모래와 자갈 결합된 청석은 오래될수록 고색창연, 내마모성 장점

용호탑...석탑(기단)+전탑(탑신) 형태 화려한 부조상이 특징

한·일 부조상과 연관성 존재

대부분 스님 사리 봉안한 '승탑'

우리의 부도와 같은 개념

'부도'는 잘못 '승탑'으로 불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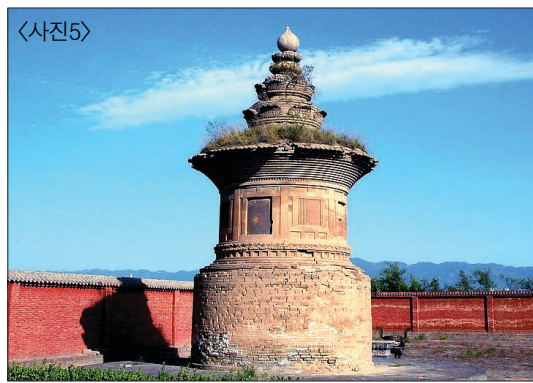
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다. 선덕왕 3년(624)에 조성된 분황사 모전석탑은 지금은 3층만 남아 있으나 본래 9층으로 추정되는 전형적인 밀침식 불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사 사문탑'과 '분황사탑'은 몇 가지 유사점이 발견된다. 그 이유는 13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 같은 시대에 조성되었다는 점과, 사문탑은 청석, 분황사탑은 안산암을 이용하여 벽돌처럼 쪼개고 다듬어 전탑 방식으로 쌓은 모전석탑이라는 점, 탑신면 사방에 4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내부 정 중앙에 4각형의 탑심(塔心)기둥이 있다는 사실 등으로 두 탑의 상호 연관성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사문탑 탑신 기둥에는 후세사람들이 서방의 아미타불(사진2), 남방의 환희세계 보살 등 석조좌불의 4방불을 모셔두어 내부에서 탑을 돌며 예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 사문탑의 외형은 청석의 빛깔만으로도 송고한 신앙심을 자아내지만, 계곡을 건너 맞은편에는 화려한 조각으로 참배객들에게 환희심을 자아내는 용호



용호탑의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한 부조상이다.



산서성 보국사의 범주전사탑.



산서성의 불광사조사탑.



불광사조사탑 1층 내부에는 조사상 2분이 모셔져 있다.

탑(龍虎塔)이다. '용호탑'은 당나라 시대에 조성된 정각식 탑으로 탑신에 용, 호랑이 등의 부조가 새겨져 '용호탑'이라 부르게 되었다. 기단은 석재를, 탑신은 벽돌을 사용하여 석탑과 전탑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높이는 10.8m 탑신 한 변의 길이는 4m이다.

이 불탑의 내부 구조는 앞서 살펴본 '사문탑'과 큰 차이는 없으나,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한 부조상(사진4)이다. 용과 호랑이 외에 나한상, 금강역사상,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는 기악상(伎樂像), 비천상 등이 새겨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조성된 불탑의 부조상과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불탑이다.

중국의 정각식탑의 또 다른 특징은 소수 몇 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승탑이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 이후부터 선불교와 밀교의 영향으로 업적과 수행이 훌륭한 스님들이 입적하면 승사리나 유골을 탑 속에 봉안하였다. 이러한 승탑은 불탑에 비하여 규모는 소형이며, 대부분이 단층의 정각식을 이룬다. '산서성 혼주시 불광사조사탑', '진중시 명혜대사

탑', '운성시 범주전사탑', '하남성 등봉의 정장전사탑', '광동성 산두시의 대전조사탑'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사찰에 따라서는 승탑을 한곳에 집중하여 조성하는데 마치 탑이 숲을 이룬다 하여 탑림(塔林)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승탑을 '부도'라고도 부르며, 탑림을 '부도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부도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서 비롯된 것인데, 과학계 표현하면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의 결례(缺禮)'이기도 한다. 그 이유는 불탑의 어원(語源)을 이해하면 알 수 있다.

불탑을 뜻하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의 수투파(Stūpa)를 중국에서는 뜻보다는 발음을 중시하여 음사(音寫)하여 솔도파(窣堵波), 솔도파(窣都波), 솔도파(窣觀波), 소두파(掃兜波), 사유파(私鑰 𑖀, 수두파(蘇斗波)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팔리어의 투파(Thūpa)에서 유파(樓婆), 두파(兜婆), 두수파(斗蘇波) 등의 여러 표현이 있으나 오늘날은 통상 탑파(塔婆) 또는 탑(塔)으로 칭한다.

또,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수투파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의역(意譯)으로는 방분(方墳), 원종(圓塚), 고현처(高顯處), 호찬(護讚) 등의 용어가 있다.

또한 부처님을 인도에서는 [Buddha]라 하는데 이것을 음사(音寫)하여 불도(佛圖), 부도(浮屠), 부도(浮圖), 포도(蒲圖) 등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불도', '부도', '포도' 등의 용어가 한문으로 기록된 경전에서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불탑이나 불상을 지칭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고승들의 묘탑인 승탑(僧塔)을 '부도'와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오늘날에는 아예 승탑이 '부도'라는 용어로 정착이 되었다.

물론 사리신앙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불사리와 승사리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 할 수 있지만, 탑의 주인공이 부처님인지 부처님의 제자인지는 구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승들의 유골을 봉안한 승탑을 부도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 된 표현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구나 훌륭한 스님들이 입적하시면, 신앙심의 염원을 담아 온 정성을 다하여 승탑을 조성하여 그 유골을 봉안한다. 이러한 승탑을 일정한 장소에 함께 모셨다는 이유로 마치 감자 밭이나 고구마 밭처럼 '부도밭'이라고 비하하여 부르는 것은 '부도'가 마치 농작물로 착각되어 그 곳의 주인공인 고승들에 대한 인격모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탑'을 '부도'라고 표현하거나 '승탑군'을 '부도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산서성 운성시 사북촌의 보국사(報國寺) 경내에 있는 범주전사탑(泛舟禪師塔)(사진5)은 당나라 시대인 793년에 높이는 10m, 지름이 5.8m로 조성된 원형의 정각식 승탑이다. 이 탑의 특징은 기단부, 탑신부, 탑찰부의 길이가 각 1/3을 차지하고 있어 비례감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 비례는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기준이 되는 불국사 3층탑의 비례감과 상통한다.

이 탑의 주인공인 범주전사는 백제와 고구려를 신라와 함께 연합하여 항복시킨 당고종(唐高宗) 이치(李治: 628년~683년)의 손자이다. 범주전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났으나, 권력다툼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황실생활을 버리고 20세 되던 해에 밀교사찰인 보국사에 들어가 평생을 불도에만 전념하였다. 그가 입적하자 이 탑을 조성하였는데, 탑신의 북쪽에 탑명과 탑의 내력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산서성(山西省) 오대현(五台縣)의 불광사조사탑(佛光寺祖師塔)(사진6)은 당나라 이전 북제(北齊) 때 조성된 것으로 전한다. 이 승탑은 높이 8m의 6각형 2층 정각식으로, 탑신은 벽돌로 쌓고 외벽에 환색으로 칠하여 청정심을 표현하고 있다. 하층 내부는 1개의 출입문과 함께 실내 공간이 있으나, 2층 내부에는 조사상 2분이 모셔져 있다. (사진7)

다음 호에는 탑신의 상부에 각종 꽃 장식을 하여 멀리서 보면 마치 꽃다발이 연상되는 화탑(花塔)과 금강보좌식 양식의 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생전예수재 장엄 안내문



귀의삼보하옵시고! 가람수호에 정진하고 계시는 각 사암 대덕큰스님 법체 존안하시옵니까.

소승 소승은 대구시내에서 불교의식 및 범음, 범패교육원을 개설하여 불교의식을 지도하고 있는 원장(동현)스님입니다. 올해 소승이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들어있는 갑오년을 맞아 예수재 장엄일제를 제작 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50년을 불교의식을 해온 것을 토대로 의식에 밝은 스님들의 고견을 얻어 장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예수재를 올리시는 각 사암 스님들을 위하여 올바른 재단 설치와 번 설치 순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수재장엄 구입방법은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고 받으실 주소와 사찰명,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물품대금은 선결제입니다.

통장 입금 확인후 3일 이내에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

- 물품구입처 : 대구불교 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8-11-906861-6 (예금주 : 주동주)
- 예수재 의식을 집전하실 스님도 알선해 드립니다.

대구불교 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장 석 동현 합장

동현스님 장엄 (생전예수재)

상표출원번호 제 40-2014-0040849호

- 1 대번
- 2 상단, 중단, 하단 위패
- 3 시왕단
- 4 26위판관 / 37위귀왕
- 5 사자단
- 6 고사단
- 7 영단
- 8 금란방, 정제소
- 9 예수시왕도량
- 10 일백사위 사화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물2동 871-1번지 ● 문의처 : 전화 053)781-4200 / HP 010-2547-4200